

광주시청 여자 양궁팀 '명가 재건' 나선다

기보배·최민선·장유정·이보영에
상비군 출신 신에 이가영 합류
각종 대회 단체전 우승 목표
최승실 감독 "소통...원팀 만들 것"



광주시청 여자 양궁팀이 6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훈련하고 있다. 최민선(왼쪽부터)·이가영·이보영·장유정·기보배, 최승실 감독.

광주시청 여자 양궁팀이 '양궁 명가' 재건에 나선다. 최승실 광주시청 감독은 6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언론 간담회를 열고 "올해를 명가 부활의 원년으로 삼겠다"면서 "선수들과 소통을 통해 부족한 것을 하나하나 채워 진정한 원팀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광주시청은 2021년 11월 최 감독이 부임한 이래 팀 재정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계명대를 졸업한 이가영을 영입, 전력을 보강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기보배, 전 국가대표 최민선의 경험과 신에 이가영의 패기를 아울러 강팀으로 도약한다는 믿음을 보이고 있다. 최 감독은 "이가영의 최대 장점은 사대에서 흔들림 없는 과감함"이라며 "실업 선배들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정교한 기술력만 보완한다면 어떤 목표라도 충분히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소개했다. 초고 3학년 때 양궁을 시작한 이가영은 중3 소년체전에서 40m와 개인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주목을 받았다. 경기체고 시절 부상으로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했지만 그의 잠재력을 눈여겨본 유수정 계명대 감독의 지도 아래 대한민국 양궁 주역으로 성장했다. 2019년 처음으로 국가대표 상비군에 발탁됐고, 다음해 생애 첫 태극마크를 달았다.

지난해에는 전국체전 70m 금메달·혼성단체전 준우승, 한국대학연맹회장기 60m 은메달·단체전 준우승, 올림픽제패기념 제39회회장기 실업양궁대회 개인전 3위, 제40회 대통령기 양궁대회 단체전

3위, 제56회 전국남녀중별선수권대회 단체전 우승을 차지하는 등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이가영은 "아직 부족하지만 선배들과 함께 메달도 많이 따고 싶다. 특히 단체전 우승으로 팀의 일

원임을 증명하고 싶다"며 "개인 목표인 파리올림픽에 나갈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가영의 합류를 계기로 광주시청은 올해 기보배, 최민선, 장유정, 이보영으로 선수단 구성을 마치고 광주국제양궁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어느 해보다 훈련 일정을 앞당겨 담금질을 시작했다. 태극마크 탈환에 나선 기보배, 최민선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향해 시위를 당기고 있다. 이들은 오는 3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을 위한 최종 관문을 앞두고 있다. 광주시청 양궁팀은 최 감독의 부임 이후 한층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그는 선수들에게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한 정신재무장을 강조하며 팀의 성장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최 감독은 "실업팀 선수라면 냉정하게 실력으로 검증받아야 한다"며 "선수들이 끊임없는 노력으로 가치를 창조할 수 있도록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감독의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선수들도 계묘년 새해 각오를 다지고 있다. 주장 기보배는 "빛나던 시절 팀의 주역으로서 다시 그 명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새로운 마음으로 선수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하고 싶다"며 "무엇보다 가영이의 합류로 팀이 더 밝아진 것 같아 기쁘다. 올해는 무엇보다 한동안 뜬했던 단체전 우승을 많이 해 확실한 원팀임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글·사진·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김주형, 2023 PGA 투어 첫 대회 '톱5'

온 람 27언더파로 역전 우승
이경훈 공동 7위·임성재 13위



김주형이 9일 미국 하와이주 마우이섬 카팔루아의 카팔루아 플랜테이션 코스(파73·7596야드)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티샷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형(21)이 2023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첫 대회에서 '톱5'에 이름을 올렸다. 김주형은 9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주 마우이섬 카팔루아의 카팔루아 플랜테이션 코스(파73·7596야드)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하나를 묶어 5언더파 68타를 쳤다. 최종합계 22언더파 270타가 된 김주형은 J.J. 스펀(미국)과 공동 5위로 대회를 마쳤다. 지난해 PGA 투어에서 우승했거나 시즌 최종전인 투어 챔피언십에 나갔던 선수만 출전할 수 있는 '왕중왕전' 성격의 이 대회에 김주형은 처음으로 출전했다. 지난해 8월 윈덤 챔피언십, 10월 슈라이너스 칠드런스 오픈에서 2승을 보유했던 그는 나이키와 후원 계약 후 처음으로 나선 이번 대회에서 나흘 내내 5위권 성적을 유지하며 새해 기대감을 높였다. 공동 5위로 출발한 이날 김주형은 전반엔 버디와 보기 하나를 맞바꿔 타수 줄이지 못했다. 하지만 12번 홀(파4)에서 두 번째 샷을 홀 2m 남짓에 붙인 뒤 버디를 잡아냈고, 14~16번 홀에 선 연속 버디가 나와 상승세를 탔다. 이어 마지막 18번 홀(파5)에서 투온 투퍼트르 버디를 추가했다. 한국 선수로는 이경훈(32)이 공동 7위(21언더파 271타)에 오르며 김주형과 더불어 10위 안에 진입했다. 지난해 이 대회에 처음 출전해 33위에 올랐던 이경훈은 두 번째 도전에선 순위를 대폭 끌어 올렸다. 그는 이날 버디 7개와 보기 하나를 6타를 줄였다. 우승은 김주형과 같은 조로 경기한 온 람(스페인·27언더파 265타)에게 돌아갔다. 람은 지난해 5월 멕시코 오픈 이후 8개월 만에 승수를 추가, PGA 투어 통산 8승째를 거뒀다. 우승 상금은 270만 달러(약 33억7000만원)다. 3라운드까지 선두 콜린 모리카와(미국)에게 7타 뒤진 공동 5위였던 람은 최종 라운드에서만 10언더파를 몰아쳐 대역전극을 만들어냈다. 2위에 6타 차로 앞선 가운데 4라운드를 시작한 모리카와가 6번 홀(파4) 버디로 7타 차 선두를 질주할 때만 해도 트로피를 예약하는 듯했다. 하지만 이후 모리카와가 버디 기회를 여러 차례 놓치는 사이 두 조 앞에서 경기한 람이 12~14번 홀 버디에 힘입어 3타 차로 쫓아갔다. 이어 람은 15번 홀(파5)에서 두 번째 샷을 홀 약 3.5m에 보내더니 이글 퍼트를 떨어뜨렸고, 그 좁 모리카와는 14번 홀(파4) 티샷을 벅커에 빠뜨린 뒤 고전한 끝에 이번 대회 첫 보기를 적어내며 공동 선두를 허용했다.

모리카와는 15번 홀에선 웨지샷 실수 탓에 4타 만에 그린에 올린 뒤 연속 보기에 그쳐 선두에서 내려왔고, 16번 홀(파4)에서도 실수가 이어지며 다시 보기를 써내 두 타 차로 밀려났다. 람은 18번 홀 버디로 쟁기를 박았다. 마지막 홀에서 버디를 기록한 모리카와는 두 타 차 준우승(25언더파 267타)에 만족해야 했다. 임성재(25)는 조던 스피스(미국) 등과 공동 13위(19언더파 273타)에 올랐다. PGA 투어는 12일부터 하와이주 호놀룰루에서 열리는 소니오픈(총상금 790만 달러)으로 이어진다. /연합뉴스

2023 KBO 기록강습회 2월 3~5일 부산·16~18일 서울 열려

광주 강습회는 추후 결정

코로나19로 중단됐던 KBO 기록 강습회가 3년 만에 개최된다. 2023년 KBO 기록강습회가 2월 3~5일 부산 부경대학교, 2월 16~18일 서울 건국대학교에서 열린다. 기록강습회는 야구 공식기록법의 보급과 이해를 통한 저변확대를 위해 프로야구 원년인 1982년부터 개최됐지만, 코로나19로 중단됐었다. 3년 만에 열리는 이번 기록강습회는 야구 기록에 대한 팬들의 갈증을 해소해 줄 전망이다. 부산에서는 2017년 이후 7년 만에 열리는 행사이기도 하다. KBO 공식기록원들이 강사로 나서 프로야구에서 사용되는 공식기록지 작성법, 기록 및 경기 규칙 등을 다루고, 생생한 현장도 전하게 된다. 수강 신청자에게는 실습용 야구기록지와 기록 가이드북이 교재로 제공된다. 각 강습회 종료일에는 전체 강습 과정의 이해도를 평가하는 기록지 작성 테스트가 진행되며, 테

스트 성적 우수자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된다. 부산 강습회는 선착순 150명을 대상으로 하며, 18일 오전 10시부터 KBO 홈페이지 수강신청 접수창을 통해 접수가 이뤄진다. 200명을 모집하는 서울 강습회는 30일 10시부터 수강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광주에서도 3월 야구 기록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GBSA)와 한국야구 기록연구회(KBR)가 주최하는 제12회 야구기록 강습회가 KBO 시범경기 일정에 맞춰 3월 개최될 예정이다. KBR은 지난 2011년 지역에서는 처음 기록강습회를 연 뒤 올해로 12번째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한 진행되는 강습회 수료자 중 현장 기록에 참여하는 이에게는 생활체육 및 학생 야구 현장 기록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예정이다. 광주 기록강습회의 자세한 일정은 추후 결정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EPL 뉴캐슬·애스턴 빌라 이강인 영입 관심

유럽 4개 구단 영입 준비 바이아웃은 약 226억 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뉴캐슬, 애스턴 빌라 등 유럽 4개 구단이 겨울 이적 시장에서 이강인(22·마요르카)을 데려오는 데 관심을 보인다. 외신 보도가 나왔다. 스페인 매체 마르카는 8일(현지시간) 뉴캐슬과 애스턴 빌라를 포함해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번리, 네덜란드 명문 페예노르트가 이강인 영입을 고려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아직 이들 팀이 이강인의 소속팀 마요르카(스페인)에 공식 제안을 건네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전력분석관들이 지난해 11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경기가 펼쳐진 마요르카의 홈 경기장을 방문해 이강인을 살피는 등 영입에 관심을 보이는 상황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이 경기에서 이강인은 선발로 그라운드를 밟아 72분을 소화했다. 공격포인트는 올리지 못했지만 활발하게 전방을 누비며 팀의 1-0 승리에 일조했다. 마르카에 따르면 이강인의 바이아웃은 1700만 유로(약 226억원)로 파악된다. 바이아웃은 원소속팀이 선수의 계약 기간에 이적 허용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최소 이적료다. 타 구단은 바이아웃 금액을 제시하면 원하는 선



이강인

수와 이적 협상을 벌일 수 있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매각돼 '오일머니'를 품은 뉴캐슬이나 애스턴 빌라에는 크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라고 마르카는 전했다. 뉴캐슬(9승 8무 1패)은 이번 시즌 리그 3위에 올라 있다. 이 순위를 지키려면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행 티켓을 잡는 데. 애스턴 빌라는 6승 4무 8패로 켈시(7승 4무 6패)에 이은 10위에 자리해 있다. 페예노르트도 지난해 여름 이적 시장부터 이강인에게 관심을 품은 구단 중 하나로 꾸준히 언급돼 왔다. /연합뉴스